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월왕전

작자 미상 · 고전 소설, 군담 소설, 영웅 소설, 방각본(경판) 소설
2021년 3월 고2 · G202103H2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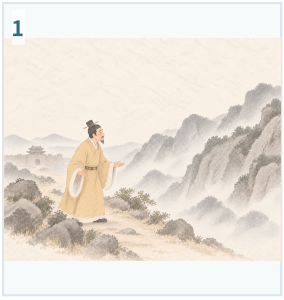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103H2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막힌 길, 무너진 호위 → 자결 직전, 소년 장수







막힌 길, 무너진 호위 → 적장의 위협, 천자의 통곡 → 자결 직전, 소년 장수

1. 막힌 길, 무너진 호위 [1]~[2]

천자가 몰래 북문을 열고 도망하지만 길은 없고 산이 가로막는다 — 서술자: 「어찌 행하리오.」 적장 강공 형제가 쫓아오며 마구 무찌르자, 천자를 호위하며 달리던 최두와 왕건이 칼을 들고 맞서지만 일합도 못 되어 강공은 최두를, 강녕은 왕건을 벤다.

2. 적장의 위협, 천자의 통곡 [3]~[6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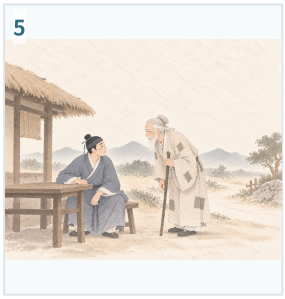
강공이 칼을 춤추며 외친다. 「송 천자는 죽기를 두리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.」 강공이 점점 다가오자 천자는 어쩔 줄 몰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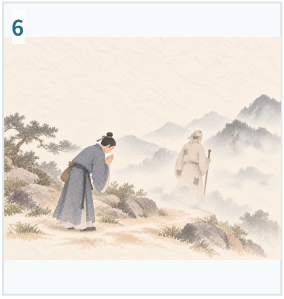
3. 자결 직전, 소년 장수 [7]

천자가 차고 있던 인검을 빼어 자결하려는데, 뜻밖에 한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달려들어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무찌른다. 서술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는다 — 「아지 못하겠어라. 이 어떤 사람인고.」.

암기 그림 2 · 내쳐진 소년, 주점의 노인 → 이별과 사라짐







내쳐진 소년, 주점의 노인 → 술법, 그리고 천자를 구하라 → 이별과 사라짐

4. 내쳐진 소년, 주점의 노인 [8]~[14]

선설(앞의 이야기를 하자면) — 유실부는 어머니 곁을 떠나 연무대로 가 천자의 출정에 끼려 했으나, 천자가 나이 어림을 꺼려 「무용지인」으로 내치자 물러난다. 갈 곳을 모른 채 부친 소식을 알아보며 다니다가 주점에서 쉬는데, 백발노인이 갈건야복에 청려장을 끌고 지나다 급히 들어와 묻는다.

5. 술법, 그리고 천자를 구하라 [21]

(중략) 노인이 서책 몇 권을 내주자 유생은 한눈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배워 불과 몇 년 만에 통달한다. 노인: 「천지조화지리를 알았으니 세상에 나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.」 도적의 난과 천자의 출정은 짐작했던 유생이 「위태함」에 크게 놀라 묻는다.

6. 이별과 사라짐 [22]~[26]

노인이 행장을 차려 주며 떠나기를 재촉하자 유생이 마지못해 절한다. 「은혜로 배운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천륜 같은 정을 갑자기 이별하니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황황망조

뜻 마음이 몹시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. 강공이 다가오자 천자가 보인 모습이다([5]).

배경 遑遑罔措 · 황황망조

작품 속 쓰임 마음이 몹시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. 강공이 다가오자 천자가 보인 모습이다([5]).



2. 앙천통곡

뜻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울. 「송조 백여 년 기업이 … 망할 줄 알리오」라는 망국의 탄식이 뒤따른다([5]~[6]).

배경 仰天痛哭 · 앙천통곡

작품 속 쓰임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울. 「송조 백여 년 기업이 … 망할 줄 알리오」라는 망국의 탄식이 뒤따른다([5]~[6]).



3. 엄살

뜻 갑자기 들이쳐 마구 죽임. 소년 장수가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휩쓰는 장면이다([7]).

배경 掩殺 · 엄살

작품 속 쓰임 갑자기 들이쳐 마구 죽임. 소년 장수가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휩쓰는 장면이다([7]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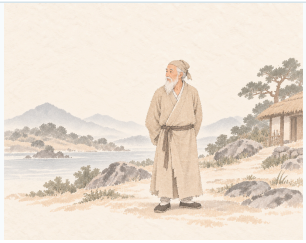


4. 무용지인

뜻 쓸모없는 사람. 천자가 나이 어린 유실부를 내친 까닭이 된 말이다([8]) — 뒤에 천자 스스로 뉘우친다([44]).

배경 無用之人 · 무용지인

작품 속 쓰임 쓸모없는 사람. 천자가 나이 어린 유실부를 내친 까닭이 된 말이다([8]) — 뒤에 천자 스스로 뉘우친다([44]).



5. 갈건야복

뜻 칡베로 만든 두건과 베옷.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은사의 차림으로, 백발노인의 모습이다([9]).

배경 葛巾野服 · 갈건야복

작품 속 쓰임 칡베로 만든 두건과 베옷.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은사의 차림으로, 백발노인의 모습이다([9]).



6. 청려장

뜻 명아주 줄기로 만든 가벼운 지팡이. 노인이 끌고 지나던 지팡이다([9]).

배경 靑藜杖 · 청려장

작품 속 쓰임 명아주 줄기로 만든 가벼운 지팡이. 노인이 끌고 지나던 지팡이다([9])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> **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**
>
> (1) 천자가 유실부를 무용지인으로 내친다
> (2) 유실부가 백발노인에게 술법을 배운다
> (3) 선관이 꿈에 나타나 당부한다
> (4) 천자가 인검을 빼어 자결하려 한다
> (5) 유실부가 천자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한다

① (4)→(1)→(2)→(3)→(5)

② (1)→(2)→(3)→(4)→(5)

③ (1)→(2)→(4)→(3)→(5)

④ (2)→(1)→(3)→(4)→(5)

⑤ (1)→(3)→(2)→(4)→(5)

2.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〔일반 · 사건 · 원 시험지 28번〕

① 천자는 북문을 나와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.

② 최두와 왕건의 충성에 송나라 군사들은 전의를 불태웠다.

③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주점에서 부친을 간절히 기다렸다.

④ 유실부는 술법을 배우려고 백발노인을 찾아 산천을 헤맸다.

⑤ 유실부는 명을 어기고 출정한 점에 대해 천자께 죄를 청했다.

3. ㉠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〔일반 · 전기 · 원 시험지 29번〕

> **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**
>
> ㉠ [8] 선설

① 유실부의 활약을 소개해 천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한다.

② 유실부의 행적을 서술해 최두를 만나게 된 내막을 부각한다.

③ 유실부의 고난을 드러내 천자가 조력자가 된 사연을 부각한다.

④ 유실부의 정체를 밝혀 영웅적 활약상을 펼친 배경을 제시한다.

⑤ 유실부의 가계를 언급해 고귀한 혈통을 지닌 내력을 제시한다.

4.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천자는 위기에서 벗어난 뒤 유실부를 꾸짖기보다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공을 치하한다.

② 강공은 「송 천자는 죽기를 두리거든」[4]이라 하여 천자에게 항복을 권하며 목숨을 살려 주겠다고 약속한다.

③ 호로왕은 「양장의 죽음을 슬퍼하더라」[38]로 보아 두 장수의 원수를 갚으려 곧바로 다시 진격한다.

④ 백발노인은 「이별이 심히 서운하나」[21]라 하며 유생을 곁에 붙잡아 두려 한다.

⑤ 선관은 「부왕의 명을 받자와」[28]로 보아 스스로 판단하여 유생을 찾아왔다.

5.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」[1]처럼 배경 묘사를 길게 늘어놓아 사건의 진행을 늦춘다.

② 「소제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옵더니」[28]처럼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체험을 전한다.

③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, 앞선 일을 뒤에 끌어와 인물의 정체와 내력을 밝힌다.

④ 인물 사이의 대화를 거의 쓰지 않고 서술자의 요약으로만 사건을 전한다.

⑤ 「아지 못하겠어라」[7]처럼 서술자가 사건의 결말을 미리 알려 주어 긴장을 늦춘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